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8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3월 1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손배, 수배, 구속, 징계, 해고
이것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힘내라 민주노조!

3.15

희망버스

3월 15일! 희망버스를 탑시다!

사회적 연대로
노조파괴문제
해결한다

이쯤되면 끝날 줄 알았나?

원래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커다란 사건이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머릿 속에서 지워진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 과거 그대로 돌아가기도 한다. 아마 노조파괴를 저지른 자들도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른다. 조금만 버티면 다 잊혀지고 노조파괴는 성공할 거라고. 더군다나 정권, 정치검찰까지 나서서 무혐의 처리해줬으니 더할 나위없이 좋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적 연대의 상징, 희망버스가 옥천으로 달려온다

노조파괴 사업장들은 대부분 어려운 조건이다. 간부들은 부당해고로 길거리로 내쫓기고, 조합원들도 부당징계에 탄압을 받고 있다. 노조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조건 속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 특히, 유성지회는 현장투쟁을 통해 다시 조직력을 회복하고 금속노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 지회는 현장 관리자들과 감시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노동부와 검찰을 상대로도 투쟁을 벌였다.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도 했다. 급기야는 고공농성을 통해 노조파괴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알렷다.

이렇게 노조파괴 문제는 다시 살아났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러, 사람들 머릿 속에서 잊혀질 만 한데도 다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희망버스를 움직였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3월 15일 옥천 고공농성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밀양 등의 문제에서 사회적 연대를 보여줬던 희망버스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달려온다.

다시 살아난 불씨, 더 크게 되살리자

이번 희망버스는 유성기업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조파괴 사업장 문제를 함께 알려내고 연대를 만들고 있다. 희망버스 전국순회투쟁단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을 돌며 노조파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희망버스를 통해서 우리 투쟁의 불씨를 더 크게 되살리자. 3월 15일 옥천에서 시작하자.

3.15 유성희망버스

3월 15일 유성으로 함께가요!

노조파괴 사업장의 따라하기 병 재발

보쉬전장과 콘티넨탈 자본의 따라하기병이 또 도졌다. 노조파괴를 시작할 때부터도 쌍둥이처럼 똑같은 탄압 방법으로 헛웃음이 나게 하더니,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콘티넨탈 자본은 지회 소식지의 내용을 핑계로 박윤중 지회장과 조남덕 부지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소식지 발행인은 지회장인데도 무리하게 부지회장까지 포함시켜 표적 탄압임을 의심케 했다. 그러자 보쉬전장이 또 따라하기에 나섰다. 보쉬전장 자본이 보쉬전장지회 소식지 내용을 문제삼아 이화은 지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노조파괴를 시작하면서 회사 경영소식지를 통해서 지회를 신나게 비방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지회장을 고소하는 것인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사실 보쉬전장 자본의 이번 고소는 누가 봐도 유치한 복수고 발악이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해 수사를 마친 검찰이 대다수의 사업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상황에서 보쉬전장의 경영소식지는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었다. 정치검찰 조차도 보쉬전장 경영소식지는 노조를 근거없이 비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콘티넨탈은 금속노조의 정당한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운운하며 무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콘티넨탈지회는 2월 25일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하며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사측은 어용노조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적 책임 운운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박윤중 지회장이 현장을 순회하자 관리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콘티넨탈 조합원은 "앞으로 대표이사도 현장 돌면서 업무방해하지 말고, 반장들도 작업자들에게 말걸어서 업무방해하는 일 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피엘에이 자본의 막장드라마

휴, 폐업 운운하며 지회와 조합원들을 압박하던 피엘에이 자본이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 6일 진행된 특별교섭에서 사측은 제시안을 냈다. 110명 수준이었던 인원을 63명으로 줄이고 단협은 3월 31일부로 해지하고 체불임금 지급도 연기하자는 것이다. 근무시간도 현행보다 1시간 늘리자고 제시했다. 말이 좋아서 특별교섭 제시안이지, 구조조정을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다.

피엘에이 자본이 그동안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한 노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전개발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좇아서 피엘에이 조합원들의 피, 땀을 날려먹기만 했을 뿐이다. 그러더니 결국은 막장 드라마처럼 최악의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무능한 경영진이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못할 망정, 언제나 그렇듯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현재 피엘에이 지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회사의 상황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 경영악화의 주범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얼토당토않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무능한 자들이 공장을 떠나야 된다.

금속노조, 통상임금 등 15만 공동요구안 확정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4년 4대 투쟁목표와 4대 임금단체협약투쟁 15만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임금, 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2014년 임단협 15만 노조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올해 임금인상요구안은 159,614원(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으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는 '회사는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회사는 기존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성과급 포함 변동상여금 등으로 변형해서 지급하거나 고정급 및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요구안을 15만 공동요구로 제출한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는 15만 공동요구안과 더불어 '사업장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으로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가 가지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전체 사업장이 통상임금 관련 요구, 교섭, 타결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업장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은 '임금항목 및 단체협약안에 신설하고 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의 지급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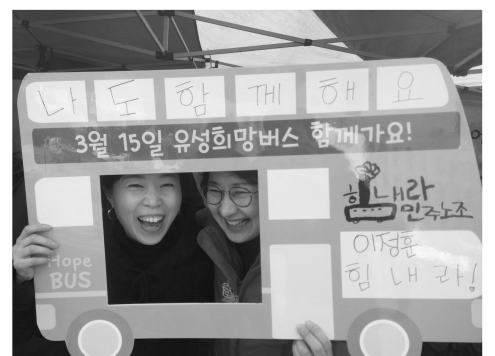
<3.07 이정훈 지회장 생일축하 선물>



<3.08 유성희망버스 전국순회투쟁 해단식>



<3.08 유성희망버스 참가 인증사진>



<3.08 유성희망버스 참가 인증사진>